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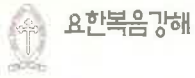
☉ 2005년도 표어 ☉

교회, 세상의 소망(벧전 2:9~12)

☉ 행동지침 ☉

- 1. 이웃의 등대
- 2. 민족의 구원선
- 3. 세상의 나침반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1-5)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4-5절).

신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여호와와 나의 빛이요”(시 27:1). 이 말씀은 영국의 명문 옥스퍼드 대학의 교훈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시 36:9).

세상에 빛이 없다면 인간은 살 수 없습니다. 빛이 없다면 우선 생명이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 것도 볼 수 없고, 아무 것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야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시 104:2).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요일 1:5).

빛과 어둠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어둠에 빛이 비치는 순간 어둠은 물러갑니다. 빛이 없으면 만물의 성장이 멈출 뿐 아니라 빛이 없는 곳에는 두려움과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 세상에 아무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시각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빛 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반사할 때 세상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혼돈이 아닌 조화와 질서와 생명을 갖게 됩니다.

16:23). 이와 같이 지옥은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빛이 창조되기 전에는 혼돈의 세계였습니다(창 1:3). ‘혼돈’은 헬라어로 ‘카오스’라고 읽으며 혼돈은 질서가 없고 조화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습니다. 사람들이 빛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빛이 비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마다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빛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자기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빛 앞에 서면 자기의 죄가 얼마나 중한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빛을 비추므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이것은 빛이 어둠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어둠에 점령당하는 법이 없습니다.

간혹 우리에게 영적인 어둠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돌아가듯 영적인 어둠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구원의 길을 알게 해줄 뿐만 아니라 소망의 길을 열어주고 실족 하지 않게 하며 빛의 아들들에게는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1.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빛이다

빛은 스스로 존재하며 다른 사물을 보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표현한 것은 매우 적절한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지어진 것과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둠의 세계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빛은 어둠을 느끼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불완전하고 어두운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희미한 빛도 있지만 하나님의 빛은 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빛은 선과 악을 구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이가 어리거나 배운 것이 없어도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그런데 높은 학문을 가진 사람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선과 악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함부로 먹고 마시다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예수님 앞에 서면 자신이 얼마나 거짓되고 위선적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만 죄인 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로 만난 사람들은 매우 겸손합니다.

2. 빛은 어둠을 점령 한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마 8:12).

주님이 없는 세계는 어둠의 세계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두운 데로 쫓겨날 터인데 어두운 데는 심판이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날마다 심판을 받는 삶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사는 것은 지옥에서 영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빛이 없는 지옥은 마귀가 있는 곳이며 더러운 곳입니다(사 14:11). 뿐만 아니라 지옥은 결박을 당하는 곳이며 분해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곳이고 고통이 심한 곳입니다(눅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빛을 비추시며, 주님의 빛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받은 빛을 세상에 반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빛 되신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셨지 “세상의 빛이 되라,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이미 빛이고 소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빛을 반사해야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4절).

오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마 5:14). 그리스도인들은 켜서 비추는 등불과 같이 그리스도를 세상의 반사하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시각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빛 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반사할 때 세상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혼돈이 아닌 조화와 질서와 생명을 갖게 됩니다. 오늘의 사회는 모든 면에서 무질서 합니다. 이렇게 무질서한 사회에 생명의 빛을 비출 사람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세상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인 사람은 결코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죄인임을 자복하고 회개할 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마다 그 빛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마다 그 빛을 반사하여 세상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005년 상반기 장학금 수여식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지난 주 순례자를 통해 발표된 대로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2005년 상반기 장학금 수여식을 찬양예배 시간에 갖는다. 장학생들은 반드시 찬양예배에 참석하여 장학증서를 수여 받아야만 장학금이 지급된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젊은이들이 계속 말씀 안에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나도록 기도한다. 2005년 상반기 장학생은 중등부-6명, 고등부-6명, 대학부-3명, 청년부-2명, 김복녀 권사 장학생 1명 등 총 18명이다.

제27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준비 시작되다

금주 중 안내 팸플릿 발송

오는 3월7일(월) 오후 2시에 개강되는 제27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준비가 금주부터 본격화 된다. 한국교회혁신연구원(원장: 민순구 장로)은 '교회행정과 예식'을 주제로 열리는 제27학기를 준비하며 안내 팸플릿을 준비하였고 6개 교계 주요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기로 하였다.

들을 대상으로 순례자와 안내 팸플릿을 동봉하여 발송한다. 14년의 세월동안 한번도 빠짐없이 전국의 목회자들의 뜨거운 호응과 성도들의 기도와 봉사를 통해 개척교회의 대표적인 신학세미나로 자리 잡은 서울교회 목회자 신학세미나가 금번 학기도 강의실로 사용되는 웨스트민스터 홀이 차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개강될 수 있도록 기도한다.

또한 금주 중에는 그동안 목회자세미나에 출석한 회원

2005년도 농어촌 100교회 계속지원 대상교회

교회는 지난 주 순례자를 통해 발표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농어촌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평준화 정책』에 따라 새로 진행되는 농어촌 100교회 후원에서 제외되어 계속후원을 하게 되는 교회 명단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타교단 교회 중 성도들이 지정한 교회 9곳, 군인교회 5곳, 기관 및 단체 7곳 등 총 21개 교회 및 단체이다.(21구좌) 자세한 명단은 다음과 같다.

1. 타교단 교회 중 지정교회

교회명	지정후원자
1 대동교회(성결교)	이복규 장로, 한평순 권사
2 빛나는교회(성결교)	주동재 집사, 김동진 집사
3 신희교회(개척)	김정호 집사
4 이미촌교회(애외특별)	안분선 권사
5 어담제일교회(고신)	황정욱 집사
6 해암교회(감리교)	홍승전 집사, 황정임 권사
7 기온중앙교회(성결교)	이만화 집사, 이원희 성도
8 신현교회(합동)	김상태 집사
9 재지교회(기장)	장덕 집사

2. 기관 및 단체

교회명	지정후원자
1 늘사랑실버비틀기모임	1-24다락방
2 북한민주화운동본부	
3 지하철신교회	
4 탈북민민보호운동본부	
5 평화교회(대성공사-국정원발목지조사기관내)	
6 평화의집(외국인근로자보호단체)	
7 한국탈북귀순동포정책협의회	

3. 군인교회

교회명	지정후원자
1 531탄약대대교회	
2 고성진부령교회	
3 백령도63대대교회	이갑진 장로
4 참빛교회	
5 미시령교회	

변경된 『농어촌100교회 운동』 정책이 궁금합니다

문 1) 100교회 후원을 계속 납부해야 하나?

답)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와 동일한 방법으로 12개월 현금하시면 됩니다. 단지 후원을 전달하는 통로를 개교회 대 개교회의 방법에서 노회 대 노회로 하게 되었으며, 개교회의 필요부분 중 일부만 지원하던 방법을 총회에서 지정한 교회를 노회를 통해 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행정절차상 연체된 부분은 소급 지급합니다.

문 2) 그렇다면 내가 지원하는 자매교회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답) 네, 알 수 있습니다. 단 현재 노회 주관으로 피 지원 노회에의 구체적인 지원 방법과 절차를 적극 협의하고 있으며 이 행정적 준비가 끝나면 후원자와의 결연교회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단 현재까지는 1교회 당 1구좌 지원을 원칙으로 했지만, 이제는 1교회 당 다 구좌 지원으로 변경되므로 여러 사람이 한 개의 교회를 지원하게 됩니다.

문 3) 앞으로 농어촌 100교회 운동을 전체적으로 어디에서 관리하게 됩니까?

답) 원칙적으로 우리교회 선교위원회에서 주관하되 노회를 통해서 후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후원자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방법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천국시민양성 - 고등부

“2005 학부모 초청주일”에 고등부 학부모를 초대합니다

2월 27일(주일) 오전 10시 601호에서

김대호 장로 (고등부 부장)



2월 27일(주일) 고등부에서는 “2005 학부모 초청주일” 행사를 갖습니다. 이 행사는 고등부에 자녀들을 보내시는 부모님들께 고등부의 교육 목표와 1년 교육계획을 소개하고, 자녀들과의 대화방법에 대한 자료배포와 반별 선생님과의 교제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별히 그동안 고등부에 자녀들을 보내지 못한 부모님들과 고등부 친구들에게 귀한 초청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가장 기뻐던 순간은 ‘자녀문제’이며, 우리나라 가정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 또한 ‘자녀문제’라는 청소년상담센터의 연구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즉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요, 동시에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특히 요즘

처럼 다원화되어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문제는 더 없이 귀중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고등학생이 되면 신앙생활이 소홀해지고, 신앙의 공백이 우려되는 오늘날에 있어 교육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만남은 더 없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가정과 학부모들의 관심과 기도, 지원이 없이는 진정한 신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학부모 초청주일행사에 꼭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들을 직접 만나서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의 만남을 기대합니다.

천국시민양성 - 교육1국 겨울수련회에 초대합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오광환 집사(유년부 부장)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어리고 배움의 길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자로 성장하길 기대하며 우리 서울교회 교육1국에서는 겨울성경학교를 준비하였습니다.

2월 21일(월)부터 교회에서 시작되는 겨울성경학교를 통해 찬양과 말씀, 그리기, 성극, 성경체험 등 교회학교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 그들의 삶에 말씀이 초석으로 뿌리내려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복음의 증거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남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어린이들이 되도록 양육코자 합니다.

추운 겨울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친구들과 어울리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라나는 우리자녀들이 되도록 학부모님의 많은 기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천국일꾼 양성 - 영어예배를 시작하며

성경의 언어는 성령으로 깨달아



지난주일(6일), 웨스트민스터 홀(101호)에서 첫 예배를 드린 영어예배에는 120여 명 남짓 되는 성도들이 모였다. 중등부 학생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성도들이 함께 드린 영어예배는 모든 순서가 영어로 진행되었으나, Kinsler 목사님의 명쾌한 발음과 쉽고 정확한 설교로 성도들은 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다. 더욱이 주보에 실린 설교 요지가 영어에 서툰 성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Kinsler 목사님은 첫 날 설교에서 모세가 처음에는 우둔하고 어눌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길을 열어 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실 것임을 힘 있게 선포 하셨다. 특히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성도들께, 성경의 언어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들려오는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여기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임을 강조하시고, 3년 정도 꾸준히 이 예배를 함께 하면 영어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독려했다. 영어예배 부장 장로님도 영육의 눈과 영어의 눈귀를 함께 열어 주실 것을 간구하며, 오직 복음의 눈으로 선명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

지금까지 해오던 영어성경공부가 재정비되어 예배 후에 다양한 수준의 영어성경공부반이 열리는데, 학생들을 중심으로 초등, 중등, 고등반과 성인들을 중심으로 초급, 중급, 고급반, 기타 필요에 따른 반 신설도 검토 중이다. 성경 공부는 원어민 교사와 다년간 영어를 사용해온 8명의 교사진이 Kinsler 목사님께 지도를 받아 학생들을 가르치게 된다.

현재 영어예배부는 더 많은 섬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2달 여 연습해온 예루살렘 찬양대(대장 김훈 집사)는 첫 예배에서 20여 명의 대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다양한 국적과 이질적인 문화권, 갈수록 대립하는 사회와 경제의 가치관들 속에서, 세계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

기 위해서 언어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어예배가 활발하게 부흥되기를 소망해 본다.

오주명(편집부)

천국시민양성 - 사랑부 겨울수련회에 초대합니다

우리 모두의 자녀들

이강인 집사(사랑부 부장)



요즘 '말아톤'이라는 영화가 상영되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마라톤을 완주한 자폐아 초원이와 헌신적인 그의 어머니를 그린 얘기입니다. TV 드라마에서도 자폐아 아들을 위해 가슴이 타들어 가는 어머니가 등장하는 드라마도 있습니다. 장애우, 우리는 모두 그들의 부모이며, 그들의 삶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초원이처럼 장애우들 모두에게 그렇게 헌신적인 부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랑부 학생들 대다수는 부모가 없이 국고에서 보조하는 재활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삶의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부 교사들은 저들이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돕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들이 못 알아듣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지만 우리가 심으면 하나님께서 기르시며 거두실 줄 알기에 기쁨으로 저들에게 복음을 심습니다.

주일 아침, 불편한 몸을 휠체어에 싣고 해맑은 웃음으로 사랑부로 들어설 때 우리는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랑부가 2월 20일(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사랑부실인 102호에서 겨울성경학교를 개최합니다. 사랑부의 특수성 때문에 하루밖에 할 수 없지만 저희 교사들은 이 짧은 시간에 좀 더 풍성한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장애우가 있다면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사랑부로 인도하시거나 저희들에게 연락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소정(편집부)



장로기정탐방 - 이완형장로 가정편

십자가의 길을 좇아서...

1939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난 이완형 장로님은 박연순 권사님과의 슬하에 진, 찬, 선이, 1남 2녀를 두고 계십니다.

교직에 들어선 지도 어언 40여년, 대학에서 어학을 가르치는 장로님은 올해 교육위원장과 교육4국 국장, 성경대학 학장과 영어예배부 부장으로 수고하고 계신다.

이 장로님은 일찍이 예수를 믿은 독실한 할머니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으셨다. 유년시절부터 주일학교의 모범생이었고, 고등부 회장을 연임하는 등 누님들과 함께 주일학교를 섬기던 그 시절이 장로님에게는 열정적인 청년의 때로 기억된다.

장로님은 중 2때 영한사전을 통째로 암기하며 외교관의 꿈을 키웠으나 어머니의 권유로 교직을 선택하셨는데, 이제 지나는 날들을 돌이켜 볼 때마다 늘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98년 스테반회 간사로 섬기면서 여러 번의 장례와 유가족들을 보며 크리스찬의 복된 죽음을 통해 믿음이 한층



더 깊어졌음을 돌아보며 이듬해 장로 피택을 받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다.

이완형 장로님은 성도님들에게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바라고 소망하며 구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뿐 아니라 생활의 전부를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자문하며 십자가의 길을 좇아야 할 것이라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를 기억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아까운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는가를 다시 떠올리고 우리 발의 등이요 길의 빛 되신 예수님을 닮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성실히 갈 것을 권면하셨다.

복음의 산실이 되기 위해 항상 새롭게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서울교회의 한 모퉁이 돌로 깨어 기도하시는 장로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나소정(편집부)

